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이 예 린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최근 거부민감성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거부민감성 하위요인(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예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파국화, 반추, 타인비난, 자기비난)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제안을 경험 연구를 통해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장훈장학회 후원 사업에서 제공받은 인바이트 조사 패널을 통해 모집한 성인 표본 300명(남 98명, 여 202명)이 온라인을 통해 거부민감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우울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거부민감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각각 고유하게 정적으로 우울을 예측하였다. 더 나아가 거부불안이 자기비난 및 파국화를 통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우울로 이어지는 직접효과가 유의했다. 한편 거부분노는 파국화를 통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우울로 이어지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거부예상의 경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거치지 않고 우울로 이어지는 직접효과만이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타인의 거부에 민감한 개인이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정적 정서의 유형을 고려한 개입이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임상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요어: 우울, 거부민감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본 연구는 장훈장학회의 후원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부는 2022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고,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혜인,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우울은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감정 중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우울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면 개인이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를 야기하여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박해준, 설현수, 2020; 정선영, 2019; Hsieh, Liu, & Qin, 2019). 우울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대인관계(Steger & Kashdan, 2009)와 학업 및 직업 장면(김경령, 서은희, 2018; 노명선 등, 2006)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음주와 같은 부적응적 대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알코올 사용장애로 발병하게 될 위험이 높다(Magee & Connell, 2021). 또한 우울은 자살 사고 및 행동의 주요한 예측 요인이기도 하다(김광진, 정남운, 2019; 이상은, 이은진, 함옥경, 2021).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요구받는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 문제 및 높은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을 보다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심미영, 이돌녀, 김은희, 2016; 정성란, 2020), 2019년에 보건복지부에 의해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대(19~29세)가 7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우울감경험률(13.0%)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국가지표체계, 2021).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우울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거론된다는 점(Hammen, 2003), 그리고 역치하 우울 또한 주요우울장애 못지않은 기능장애를 야기하며(Casey, Varela, Marriott, Coleman, & Harlow, 2022; Noyes, Munoz, Khalid-Khan, Brietzke, & Booij, 2022) 이러한 역치하 우울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우울장애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Klein, Shankman, Lewinsohn, & Seeley, 2009), 시기적으로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우울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위험 요인과 그 기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겪은 사람 모두가 우울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Moriya & Takahashi, 2013), 일례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지적 믿음과 사고를 나타내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우울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Beck & Bredemeier, 2016; Sfarlea et al., 2021). 이들은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편향되게 해석하여(Chahar-Mahali, Beshai, Feeney, & Mishra, 2020; Nieto, Robles, & Vazquez, 2020) 더 자주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Steger & Kashdan, 2009),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촉발되는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우울을 경험한다(Sheets & Arney, 2020). 특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울해진 개인은 타인에게 본인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우울을 완충하는 사회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켜(Coyne, 1976), 더 큰 우울을 경험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Haeffel, Voelz, & Joiner, 2007; Shaver, Schachner, & Mikulincer, 2005). 이처럼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주변인과의 부정적인 관계 양상이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Hsieh et al., 2019) 우울의 발생 및 심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Eberhart & Hammen, 2006),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장면에서 두드러지는 우울의 취약성 중 하나인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의 모호한 신호를 더욱 쉽게 거부 단서로 지각하여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과도한 반응을 나타내는 개인의 성향을 의미한다(Ayduk & Gyurak, 2008; Downey & Feldman, 1996; Levy, Ayduk, & Downey, 2001). 거부민감성은 낮은 자아존중감(Zimmer-Gembeck, 2015), 공격성 및 적대적 행동(유예림, 강혜자, 2021), 사회적 위축(Zimmer-Gembeck & Nesdale, 2013), 그리고 외로움(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과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고은영, 김미경, 2020; 김혜경, 2021; Overall & Sibley, 2009), 더 높은 우울 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문은정, 이아라, 2021; Beeson, Brittan, & Vailancourt, 2020; Zimmer-Gembeck, Nesdale, Webb, Khatibi, & Downey, 2016), 선행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성이 우울의 취약성 중 하나임이 지지되어 온 바 있다(Chango, McElhane, Allen, Schad, & Marston, 2012).

Ayduk와 Gyurak(2008)은 Cognitive Affective Processing System(CAPS; Mischel & Shoda, 1995)을 적용하여 거부민감성을 인지-정서 처리 성향으로 개념화하였는데,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타인의 거부가 예상되는 특정한 심리 사회적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습관화된 부적응적 인지-정서 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침을 의미한다. 특히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어릴적 주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 경험으로 인해 거부로 여겨질 수 있는 작은 단서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

고(Berenson et al., 2009), 모호하고 중립적인 타인의 반응을 위협적인 거부 단서라 부정적으로 편향되게 해석함으로써(박정현, 이종선, 2018) 더 높은 부정적 정서 및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Gao, Assink, Cipriani, & Lin 2017; Normansell & Wisco, 2017). 이들은 타인의 수용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위협하는 외부의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 정서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정서를 조절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는데(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지적 가용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Webb, Miles, & Sheeran, 2012), 거부민감성과 같은 인지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성공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Ehring, Fischer, Schnulle, Bøsterling, & Tuschen-Caffier, 2008).

특히 스트레스 사건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는 개인일수록 부정적 정서를 보다 즉각적으로 완화하려 시도할 수 있으며(Sheppes et al., 2014), 이때 보다 적은 인지적 자원을 통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Joormann & Stanton, 2016; Sfarlea et al., 2021). 이러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사건을 모호하게 평가하게 만들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낮출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부적응적인 회피 전략의 사용을 부추겨 부정적 정서를 높임으로써(Flink, Boersma, & Linton, 2013; Watkins & Moulds, 2007)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김은지, 이은샘, 현명호, 2018; Zimmer-

Gembeck et al., 2016). 일례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속하는 모든 전략이 내재화 문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며 (Martin & Dahlen, 2005; Melero, Orgilés, Espada, & Morales, 2021),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Garnefski & Kraaij, 2018; Garnefski, Kraaij, & van Etten, 2005;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이에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의식적인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정서조절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Garnefski et al., 2001)을 기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거부에 민감한 개인은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고은영, 김미경, 2020), 회피 행동을 나타내어(이민선, 노안영, 2018) 친밀한 애정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김혜경, 2021), 선행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같은 회피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하여 관계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이 관찰된 바 있다. 한편 거부민감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대다수의 선행 연구가 우울 증상과 같은 정신병리 변인이 아닌 행동 반응 및 사회적 기능손상을 종속 변인으로 검증하여, 우울의 병리 기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지영, 심혜원, 2021; 이민선, 노안영, 2018; Croft & Zimmer-Gembeck, 2014). 오직 하나의 국내 연구만이 대학생 표본을 대상

으로 거부민감성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기제로서 검증하였는데, 연구 결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와 거부민감성의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은비, 2018). 더하여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포괄적으로 측정된 연구는 아니었으나, 거부민감성이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여러 유형의 반추가 간접효과를 나타냈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은지 등, 2018; 문은정, 이아라, 2021)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반추와 같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더 높은 우울 수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간접적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거부민감성을 타인의 거부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정서 수준을 측정하는 정서 차원 하위요인인 거부불안 및 거부분노, 그리고 모호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인지 차원 하위요인인 거부예상으로 세분화하여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구체적으로, 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ARSQ; Berenson et al., 2009)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Innamorati 등(2014)은 거부민감성이 단일차원 모형이 아닌 쌍요인 모형으로 더 잘 설명되며, 거부예상 하위요인이 일반요인보다 특수요인에 더 강한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거부예상의 고유한 역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더하여 Preti, Casini, Richetin, De Panfilis와 Fontana (2020)는 거부민감성 삼요인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에서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이 각기 다른 자기 및 대인관계 기능을 고유하게 예측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거부민감성과 심리사회적 문

제 간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부민감성을 하위요인 수준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Zimmer-Gembeck 등 (2016)은 아동·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한 1년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거부불안과 거부분노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용양상 및 각기 다른 행동 반응과 연관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거부예상이 거부불안 및 거부분노와 약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더 큰 우울 증상을 예측하였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연령 집단에 따라 거부민감성 질문지에서 측정하는 부정적 정서 유형 개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거부민감성 질문지(RSQ; Downey & Feldman, 1996)는 거부에 대한 방어적 정서로 불안만을 측정하는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부민감성 질문지(CRSQ; 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a)에서는 불안에 더해 분노 또한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각 연령 집단에 따라 거부민감성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Zimmer-Gembeck과 Nesdale(2013)은 이를 고려하여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RSQ에 거부분노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거부민감성의 병리 기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성인 표본에서도 거부분노가 거부불안과 마찬가지로 거부민감성이 정신병리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도 거부로 인한 불안과 분노를 모두 측정할 필요가 있음이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따라서 성인 표본을 대상

으로 거부민감성의 정서 차원 중 하나인 거부분노가 측정될 필요가 있으며,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기제를 통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에서의 제안을 함께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거부불안 및 거부예상과 더불어 거부분노를 측정함으로써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이 각기 차별적인 기제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한편 거부민감성 하위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기제로 기능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어, 개별 전략(파국화, 반추, 타인비난, 자기비난)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에서도 특히 자기비난(Garnefski & Kraaij, 2018; Garnefski et al., 2001; Lei et al., 2014), 파국화(이유현, 정소희, 최용용, 2018; Reijntjes, Stegge, & Terwogt, 2006), 그리고 반추(Aldao & Nolen-Hoeksema, 2010; Schäfer et al., 2017)가 우울과 강한 연관을 지니는 반면 (Garnefski & Kraaij, 2006; Omran, 2011), 타인비난과 우울 간의 연관성은 다소 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rnefski et al., 2001; Omran, 2011). 하지만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는 아동에서 타인비난이 우울의 위험 요인인 또래 문제 증가 및 친사회적 행동의 감소를 예측하였으며(Melero et al., 2021), 우울 임상군에서 타인비난 전략의 사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기에(Garnefski & Kraaij, 2006), 타인비난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호한 거부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예상되는 정서의 유형과 거부에 대한 예상 그 자체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높은 불안을 느끼는 개인은 본인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믿음으로 인해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며(Beck, 1986; Mathews, 1990), 본인이 처한 상황을 더욱 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Lerner & Keltner, 2000) 우울을 발달시킬 수 있다(Andrews & Borkovec, 1988). 특히 걱정은 회피 기능을 제공하는 추상적 사고를 통해 단기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줄인다는 점에서 반추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brava & Borkovec, 2006). 즉, 타인의 거부에 대해 불안을 예상할수록 반추를 더 많이 사용하고 거부에 대한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일례로,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개인이 더 큰 거부불안과 사회적 위축 행동을 통해 높은 우울 수준을 나타냈으며(Zimmer-Gembeck et al., 2016), 거부불안이 반추와 자기비난을 통해 사회적 위축을 예측한 바 있다(Casini, Glemser, Premoli, Preti, & Richetin, 2021).

한편 불안이 높을수록 갈등과 같은 위협 사건을 회피하며(Maner & Schmidt, 2006), 거부불안이 높은 개인이 관계의 연속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Croft & Zimmer-Gembeck, 2014), 거부불안이 높은 개인이 타인비난을 통해 정서를 조절하고자 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위협 사건으로 인해 분노를 느끼는 개인의 경우 타인이 적대적인 의도를 지녀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귀인 할 가능성이 높기에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Crick & Dodge, 1996), 거부분노가 높은 개인은 거부 사건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림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낮추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거부분노가 높은 개인은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전략으로 타인비난을 더 자주 사용하였으며, 거부분노만이 타인과의 갈등 증가를 고유하게 예측한 바 있다(Croft & Zimmer-Gembeck, 2014). 더하여 거부분노가 높을수록 사건의 위험성을 부풀려 해석하는 과극화를 통해 우울을 부추기는 행동 반응인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Casini et al., 2021).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의 인지 차원인 거부예상은 정서를 조절하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거치지 않고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Zimmer-Gembeck et al., 2016). 일례로, Casini 등(2021)의 연구에서 거부예상과 자기비난을 제외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모호한 자극을 거부 단서로 예민하게 지각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실제로 타인의 거부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데(Downey et al., 1998b), 이러한 반복된 경험이 거부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 절망감을 발생시킴으로써 우울의 발달을 부추길 수 있다(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종합하여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 하위요인과 우울의 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이 기제로 작용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타인

의 거부로 인해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정적 정서의 유형(거부불안, 거부분노)과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는 인식(거부예상)이 각기 다르게 우울에 기여하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후 거부민감성 하위요인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 간의 차별적인 연관성 및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이 각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을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장훈장학회 후원 사업에서 제공받은 인바이트 조사 패널을 통해 모집한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자료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미응답 및 불성실 응답이 존재하지 않아 모든 참가자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참가자 중 여성이 202명(67.3%), 남성은 98명(32.7%)이었고, 평균 연령은 22.81세 ($SD=2.50$)였다.

측정 도구

거부민감성 질문지(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 Zimmer-Gembeck 등 (2016)은 CRSQ에서 거부불안예상과 거부분노예상 점수가 도출될 때 둘 모두 수용예상(거부예상)이라는 동일한 항목이 사용되어 측정 중복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예상을 각기 다른 변인으로 생성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거부민감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하고 이복동(2000)이 번안 및 타당화한 RSQ를 사용하되, Zimmer-Gembeck과 Nesdale(2013)이 거부분노 변인을 생성한 방식을 차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복동(2000)이 번안한 기존의 RSQ의 18가지 상황에 대한 응답 문항(거부불안, 수용예상)에 거부분노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RSQ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상황 1번에 대한 응답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거부분노 문항은 ‘강의노트를 빌려주지 않을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와 같이 서술되었으며, 같은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거부불안 문항은 ‘강의노트를 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거부예상 문항은 ‘강의노트를 빌려줄 것이라 예상된다.’와 같이 서술되었다. 따라서 기존 RSQ는 총 36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18가지 상황 모두에 거부분노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총 54문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가자는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6)’로 구성된 6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응답하였다.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예상(역산값)은 18가지 상황에서 각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상황 개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산출되었으며, 전체 거부민감성의 경우 거부불안과 거부분노 각각에 거부예상(역산값)을 곱하여 거부불안예상과 거부분노예상 점수를 구한 후 거부불안예상과 거부분노예상을 합산하여 상황 개수로 나눈 평균값을 통해 산출되었다. 전체 거부민감성 점수 및 각 거부민감성 하위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적인 거부민감성 및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예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Zimmer-

Gembeck 등(2016)의 연구에서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에 따른 내적 합치도는 거부불안 .77, 거부분노 .81, 거부예상 .79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거부민감성 .95, 거부불안 .95, 거부분노 .97, 거부예상(수용예상) .93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참가자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한 CERQ를 김소희(200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총 9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적응적 전략은 총 5가지(수용, 해결중심사고, 균형 있게 바라보기, 긍정적 재초점, 긍정적 재평가)이며, 부적응적 전략은 총 4가지(파국화, 반추, 타인비난, 자기비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부적응적 전략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인 파국화(4문항), 반추(4문항), 타인비난(4문항), 자기비난(4문항)을 합한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는 각 문항에 ‘거의 그렇지 않다(1)’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응답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소희(200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파국화 .78, 반추 .68, 타인비난 .83, 자기비난 .7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파국화 .86, 반추 .83, 타인비난 .87, 자기비난 .85로 나타났다.

역학조사센터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참가자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edloff(1977)가 개발한 CES-D를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표준화 및 타당화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둔 우울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참가자는 지난 일주일 간 경험한 우울 증상을 ‘극히 드물게(0)’에서 ‘거의 대부분(3)’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응답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1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version 21과 AMOS 26.0을 활용하였다. 우선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모든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측정 도구에 대한 내적 합치도 분석을 시행한 후,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을 매개변인으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변인 간의 공분산을 설정할 때 독립변인에서 거부예상이 거부불안 및 거부분노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거부불안과 거부분노 간의 공분산만을 허용하였으며, 매개변인에서 모든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 간의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χ^2)과 함께 CFI, SRMR, RMSEA 등의 다른 모형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

려하였다. 구체적으로, CFI가 1에 가까울수록 최적인 것으로 보며 보통 .9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Tucker & Lewis, 1973). SRMR의 경우 .08 이하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Hu & Bentler, 1999), RMSEA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좋으며 .08 이하일 경우 적절한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연구모형 내에 포함된 모든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더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함으로써 매개효과와의 유의성을 보다 신뢰롭게 검증하였다(Hayes, 2013).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의 왜도는

-.74부터 .92까지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1.46부터 5.57까지의 값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에서 왜도의 절댓값이 3, 첨도의 절댓값이 10을 넘지 않아 본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했음을 확인하였다(Kline, 2005). 상관분석 결과, 종속변인인 우울은 독립변인인 거부불안($r=.51, p<.01$), 거부분노($r=.45, p<.01$) 및 거부예상($r=.15, p<.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매개변인인 과국화($r=.58, p<.01$), 반추($r=.44, p<.01$), 타인 비난($r=.37, p<.01$) 및 자기비난($r=.44, p<.01$) 또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거부불안과 거부분노 또한 모든 매개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부예상은 과국화, 반추, 타인 비난 및 자기비난 모두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거부불안은 거부분노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76, p<.01$), 거부불안과 거부예상 간의 상관과 거부분노와 거부예상 간의 상관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300)

	1	2	3	4	5	6	7	8	9
1. 거부민감성	-								
2. 거부불안	.79**	-							
3. 거부분노	.74**	.76**	-						
4. 거부예상	.54**	.04	.02	-					
정서조절전략									
5. 과국화	.49**	.52**	.49**	.10	-				
6. 반추	.29**	.39**	.24**	-.02	.71**	-			
7. 타인비난	.36**	.42**	.50**	-.01	.57**	.40**	-		
8. 자기비난	.27**	.39**	.25**	-.00	.55**	.64**	.15**	-	
9. 우울	.49**	.51**	.45**	.15**	.58**	.44**	.37**	.44**	-
평균	17.36	2.92	2.23	3.31	2.56	3.02	2.52	2.85	1.98
표준편차	7.25	1.02	1.06	0.84	1.05	0.96	0.91	0.90	0.58

** $p<.01$.

은 유의하지 않았다. 부가적으로 분석한 전체 거부민감성과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 간의 상관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하위요인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과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χ^2 값이 각각되지 않아 해당 모형이 관측된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2, N=300)=.499, p=.779$. 더하여 CFI, SRMR, RMSEA 등의 추가적인 적합도 지수 또한 해당 모형의 적합성을 지지하였다, CFI=1.000, SRMR=.009, RMSEA=.000, 90% CI [.000, .075].

연구모형의 각 경로 추정치는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거부민감성 하위요인 각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문에 기술하였다.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인 거부불안, 거부분노 그리고 거부예상이 우울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거부불안이 우울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221(\beta=.387), p<.001$, 거부분노 또한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86(\beta=.157), p<.05$. 마찬가지로 거부예상 또한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B=.092(\beta=.132), p<.01$.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을 거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거부불안이 과국화, $B=.365, p<.001$, 반추, $B=.479, p<.001$, 자기비난, $B=.435, p<.001$, 그리고 우울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거부민감성 하위요인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종속	독립	매개	B	Boot SE	95% LLCI	95% ULCI
우울	거부불안	과국화	.058**	.024	.021	.118
		반추	.009	.024	-.042	.052
		타인비난	.002	.005	-.003	.020
		자기비난	.044*	.022	.004	.095
우울	거부분노	과국화	.034**	.015	.011	.073
		반추	-.002	.008	-.020	.012
		타인비난	.009	.015	-.020	.037
		자기비난	-.011	.009	-.035	0
우울	거부예상	과국화	.017	.013	-.003	.049
		반추	-.001	.004	-.014	.004
		타인비난	0	.003	-.011	.003
		자기비난	-.002	.008	-.024	.010

주. N=300; Bootstrap sample size = 5,000,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B=비표준화 계수; * $p<.05$, ** $p<.01$.

$B=.108, p<.05$. 한편, 거부불안은 타인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B=.066, p=.336$. 다음으로, 거부분노는 과국화, $B=.216, p<.01$, 그리고 타인비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B=.386, p<.001$, 반추, $B=-.139, p=.06$, 자기비난, $B=-.107, p=.124$, 그리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56, p=.175$. 마지막으로, 거부예상은 오직 우울만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B=.078, p<.05$, 매개변인인 과국화, $B=.107, p=.077$, 반추, $B=-.039, p=.521$, 타인비난, $B=-.018, p=.741$, 그리고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19, p=.738$.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구체적으로, 거부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과국화[.021, .118]와 자기비난[.004, .095]이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부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반추[-.042, .052]와 타인비난[-.003, .020]이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거부분노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는 오직 과국화[.011, .073]만이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매개변인인 반추[-.020, .012], 타인비난[-.020, .037] 및 자기비난[-.035, 0]은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거부예상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서 과국화[-.003, .049], 반추[-.014, .004], 타인비난[-.011, .003] 및 자기비난[-.024, .010]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거부예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모든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 및 그 기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인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예상과 우울 간의 고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관계가 각기 다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과국화, 반추, 타인비난, 자기비난)을 통해 매개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인 거부불안, 거부분노 그리고 거부예상이 각각 고유하게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거부에 대해 불안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 모두가 개별적으로 우울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정적 관계는 앞서 거부민감성 총점으로 변인을 생성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으나(문은정, 이아라, 2021; Beeson et al., 2020), 거부민감성 하위요인과 우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 중에서도 Zimmer-Gembeck 등(2016)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거부분노를 제외하고, 거부불안은 사회적 위축 행동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우울 증상에, 거부예상은 직접적으로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 거부분노 또한 우울에 고유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부분노가 사

회적 위축 행동과 연관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Casini et al., 2021), 향후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를 연구할 때 거부분노 또한 함께 측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타인의 거부에 대해 불안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 모두 개별적으로 우울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각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이 갖는 특징이 각기 다른 병리기제를 통해 우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을 기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거부불안은 파국화, 자기비난 및 반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타인비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의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할 것이라 예상하는 개인은 타인의 입장에 더욱 공감함으로써 타인보다는 스스로에게서 귀책사유를 찾고(Preti et al., 2020; Zimmer-Gembeck et al., 2016),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반복적으로 떠올려 되짚어 나가며(Casini et al., 2021), 본인에게 일어난 일을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확대하여 받아들이는 경향(박정현, 이종선, 2018; Normansell & Wisco, 2017)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거부불안이 도피(flight)반응, 자기 침묵 및 사회적 위축 등의 타인과 거리를 두고 내적으로 회피하는 경향과 강한 연관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는 선행 연구에 의해 뒷받침 된다(이민선, 노안영, 2018; London et al., 2007;

Zimmer-Gembeck & Nesdale, 2013). 더 나아가 거부불안과 우울 사이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의 기제로서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오직 파국화와 자기비난만이 유의한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거부불안을 경험하는 개인이 사건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으로써 객관적이고 유연한 평가를 통해 구조화된 문제해결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Gellatly & Beck, 2016; Flink et al., 2013), 스스로에 초점을 둔 부정적으로 편향된 귀인 사고로 인해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울을 경험함을 의미한다(Duan, Lawrence, Valmaggia, Moll, & Zahn, 2021; Kraines, Krug, & Wells, 2017). 특히 파국화와 자기비난과 같은 정서조절전략은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통찰 지향적 사고가 아닌 모호하게 뭉뚱그려진 내용을 포함하는 사고로, 더 높은 부정적 정서 경험(Takano & Tanno, 2010)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결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tkins & Moulds, 2005).

한편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우울의 위험 요인으로 잘 확립된 반추의 위상을 고려할 때, 거부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역할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 여겨질 수 있다. Treynor, Gonzalez와 Nolen-Hoeksema(2003)는 반추가 부정적이며 이상적 기준과 현재를 수동적으로 비교하는 자책(Brooding)과 중립적이며 인지적 문제해결에 가까운 숙고(Reflective Rumination)로 나뉠 수 있으며, 넓게는 반추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그 유형에 따라 반추가 항상 역기능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제

안한 바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CERQ 반추 문항과 Treynor 등(2003)의 반추적 반응양식 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 문항을 비교하여 보면, CERQ 반추 문항에서 자책과 숙고를 함께 측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예, ‘나는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빠져있다.’,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알고 싶다.’). 일례로,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척도(K-CERQ) 타당화 연구에서 CERQ를 통해 측정되는 반추가 명확히 부적응적인 것으로 분류되기 어려움이 확인된 바 있다(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따라서 이러한 문항의 이질성이 거부불안이 반추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편 거부불안이 높은 개인이 향후 타인의 거부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찰 목적으로 더 높은 숙고를 나타내는 동시에 이러한 반추가 제공하는 이익을 적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울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생각해볼 수 있으나(Watkins & Baracaia, 2001), 숙고의 적응적 영향이 자책에 의해 오염되기 쉬우며(Takano & Tanno, 2009), 장기적 측면에서 숙고가 자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Kim & Kang, 2022),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거부분노는 파국화와 타인비난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분노가 높은 개인이 모호한 거부 사건과 그 결과를 지나치게 위협적인 것으로 부풀려 인식하고, 위협 사건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타인이 적대적인 의도를 지녔다고 판단하는 전략을 선택 및 자동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Guerra & Huesmann, 2004).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거부분노와 타인비난의 관계는 반응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개인이 타인의 의도를 보다 적대적이라 귀인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사회 정보 처리 모델에서의 이론적 제안을 지지하며(Crick & Dodge, 1996), 거부분노만이 타인비난 및 적대적 행동과 정적으로 연관되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Bondü, & Krahé, 2015; Casini et al., 2021; Zimmer-Gembeck et al., 2016). 더 나아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거부분노와 우울 사이에서 파국화만이 유의한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 사건에서 분노를 경험할 것이라 예상하는 개인이 사건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평가하는 추상화된 인지 전략을 사용하여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우울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록 본 연구에서 타인비난이 거부분노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지는 않았으나 거부분노가 거부불안과 거부예상의 영향을 통제하고서도 우울에 고유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 임상군이 타인을 비난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Garnefski & Kraaij, 2006), 향후 연구를 통해 거부분노가 높은 개인이 우울로 이어지는 세부적인 기제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타인의 거부에 대해 분노를 예상하는 개인이 타인과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Croft & Zimmer-Gembeck, 2014; Downey et al., 1998a), 거부분노가 높은 개인이 갈등의 원인을 타인에게 귀인 함으로써 더 잦은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반이 감소하여 우울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을 제한해 볼

수 있다(McDonald et al., 2010).

마지막으로, 거부예상은 거부불안과 거부분노는 물론이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자체로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예상이 거부민감성의 정서 차원 하위요인인 거부불안 및 거부분노와 별개로 우울에 고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안한 소수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일례로, London 등(2007)은 거부불안예상과 거부분노예상의 공통된 부분이 높은 외로움을 예측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Zimmer-Gembeck 등(2016)은 거부예상이 거부불안 및 거부분노와 약한 연관을 지님과 동시에 더 큰 우울을 예측함을 관찰한 바 있다. 특히 오직 거부예상만이 자아존중감과 고유한 부적 연관을 지녔으며(Preti et al., 2020), 거부예상이 친사회적 경향을 감소시킴으로써 타인의 거부를 유발하는 자기충족적 예언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Casini et al., 2021), 거부예상이 모호한 단서를 거부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개인의 역기능적 믿음 수준을 반영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Zimmer-Gembeck & Nesdale, 2013). 추후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의 역기능적 믿음(거부예상)이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부정적 정서 반응(거부불안, 거부분노)과는 별개로 개인의 자기 개념을 손상시켜 관계 형성을 회피하게끔 부추기거나 더 높은 우울 수준을 경험하도록 만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이 각기 다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거부에 민감한 개인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떤 정서 및 인지적 특성을 나타낼 시에 특정 유형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서조절전략 중 어떤 유형이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예상 등의 각기 다른 거부민감성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에게 우울 경험을 유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다양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우울의 병리 기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거부민감성 하위요인과 우울의 간접 위험요인인 행동반응 및 우울 사이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검증한 선행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Casini et al., 2021; Zimmer-Gembeck et al., 2016). 이와 같은 하위요인에 따른 차별적 기제에 관한 연구는 거부민감성의 차원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유형을 나누어 검증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의 거부민감성 질문지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측정되지 않았던 거부 상황에서 촉발되는 부정적 정서 중 하나인 분노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Zimmer-Gembeck & Nesdale, 2013), 국내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거부분노와 우울의 관계 및 그 기제를 경험 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더하여 본 연구는 대인관계 장면에서 활성화되는 우울 취약성인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우울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

전략을 정교화하는 단계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거부로 인해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정적 정서의 유형(불안, 분노)과 관계없이 사건 자체와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단정 지음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타인의 거부로 인해 불안을 더 많이 예상하는 개인의 경우 거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서 찾음으로써, 더욱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다(Zimmer-Gembek et al., 2016).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에게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망을 도울 수 있는 인지적 재구조화 훈련을 제공하여 부정적으로 편향된 파국적 내용을 포함하는 추상적 사고를 줄이되(Al-Refae, Al-Refae, Munroe, Sardella, & Ferrari, 2021), 거부불안이 높은 개인에게는 부정적인 자기 평가적 사고를 완화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돕는 마음챙김기반 인지치료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Schanche et al., 2021).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우울장애 임상군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임상군의 경우 대학생 표본과는 달리 훨씬 만성화된 부적응적 인지-정서 처리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현저한 사회적 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때 비임상군보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전반적으로 더 빈번히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Gamefski & Kraaij, 2006; Lei et al., 2014). 그러나 본 연구

의 주요 목적은 대인관계 장면에서 활성화되는 특징을 지닌 거부민감성이 그 하위요인에 따라 우울로 이어지는 양상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탐색하는 것이었으므로, 역동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더 높은 우울 수준을 예측하는 거부민감성 하위요인 각각의 차별적 기제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거부민감성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하위요인 간의 관계와 다소 다른 양상을 띠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에서 거부불안과 거부분노 간의 상관관계는 .39~.49 사이로 보고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76으로 정서 차원 하위요인 간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이러한 결과의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기 어려우나, 본 표본에서는 거부와 관련한 두 부정 정서가 잘 구분이 되지 않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가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거부분노를 포함한 거부민감성 하위요인의 병리 기제를 탐색한 첫 국내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를 통해 거부분노를 포함하는 거부민감성의 요인 구조 및 거부민감성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이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의 모호한 거부 단서로 인해 촉발되는 인지-정서 처리 성향으로(Ayduk & Gyurak, 2008), 실제 대인관계 장면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신호들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Downey & Feldman, 1996; Ehrlich, Gerson, Vanderwert, Cannon, & Fox, 2015). 즉, 거부 상황에 대한 지

문을 제시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의 경우, 거부 단서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신호들(예, 말투, 표정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부민감성에 대한 정보의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질문지(RSQ)는 현재 거부민감성 문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측정 도구이기에, 선행 연구와의 연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보완점을 지닌다. 넷째, 본 연구는 적응적인 유형에 속하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우울 임상군이 적응적 전략에 속하는 수용을 더 자주 사용함에 더하여 수용이 더 높은 우울 수준을 고유하게 예측하였으며(Lei et al., 2014),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 간의 상관 방향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특정 전략의 경우 부적응적 또는 적응적 유형으로 명확히 나뉘기 어려움이 관찰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향후 연구에서 적응적 유형에 속하는 정서조절전략 또한 병리 기제 요인으로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과 유의한 관계를 맺지 않은 거부예상이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 다수와의 유의한 부적 관계를 통해 친사회성 감소를 예측한 바 있다(Casini et al., 2021). 마지막으로, 본 연구 자료는 횡단적으로 측정되어 변인 간의 선후 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 간의 관계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일례로, 1년 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성 하위요인과 우울 증상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 두 번째 시점에서 측정한 거부불안이 6개월 후의 우울 증상을 예측하였으나, 첫 번째 시점에서 측정한 거부불안이 1년 뒤의 우울

증상을 예측하지 못한 바 있다(Zimmer-Gembek et al., 2016). 따라서 향후 종단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성 하위요인과 우울의 관계와 그 기제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해당 변인 간의 관계를 발달적 관점에서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부민감성 하위요인 수준에서 우울로 이어지는 기제를 경험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거부민감성 문헌 확장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타인의 거부에 민감한 개인 중에서도 어떤 유형의 부정적 정서를 예상하느냐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유형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으며, 예방 및 치료적 개입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개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지영, 심혜원 (2021). 여대생의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6(4), 277-296.
- 고은영, 김미경 (2020).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과 갈등해결전략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2), 181-198.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경령, 서은희 (2018). 대학생의 우울수준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정의적 특성의 차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237-257.
-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23-1044.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 이은샘, 현명호 (2018). 거절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와 사회적 회피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187-207.
- 김혜경 (2021). 청소년의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4), 77-103.
- 노명선, 전홍진, 이해우, 이효정, 한성구, 함봉진 (2006). 대학생들의 우울장애에 관한 연구: 유병율, 위험요인, 자살행동 및 기능장애. 신경정신의학, 45(5), 432-437.
- 문은정, 이아라 (202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7), 157-172.
- 박영례, 장은희 (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인간호학회지, 25(5), 549-558.
- 박정현, 이종선 (2018).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1), 66-79.
- 박해준, 설현수 (2020). 대학생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감사와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역량개발학습연구(구 한국HRD연구), 15(3), 127-148.
- 심미영, 이둘녀, 김은희 (2016).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5), 227-236.
- 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척도(K-CER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3), 1773-1794.
- 유예림, 강혜자 (2021).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편향 및 전위된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적 통제의 조절 효과. 사회과학연구, 60(2), 383-406.
- 이민선, 노안영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침묵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175-1192.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은, 이은진, 함옥경 (2021). 자살 태도, 삶의 인식,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7), 305-315.
- 이유현, 정소희, 최용용 (2014). 성별에 따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6), 2491-2508.
- 이하희, 김유미 (2017). 초등학교생의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 자기자비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6(1), 67-83.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선영 (2019). 대학생의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0(5), 313-324.
- 정성란 (2020).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8(1), 221-242.
- 최윤영 (2021). 생도생활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7(2), 195-217.
- 최은비 (2018). 거부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1년 1월 6일). 우울감경험률.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6>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 Adams, R. E., Bukowski, W. M., & Bagwell, C.

- (2005). Stability of aggression during early adolescence as moderated by reciprocated friendship status and friend's ag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39 - 145.
- Aldao, A., & Nolen-Hoeksema, S. (2010). Specificity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 transdiagnostic examin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10), 974 - 983.
- Al-Refae, M., Al-Refae, A., Munroe, M., Sardella, N., & Ferrari, M. (2021). A Self-Compassion and Mindfulness-Based Cognitive Mobile Intervention (Serene) for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Promoting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and Wisdom. *Frontiers in Psychology, 12*. 648087. doi.org/10.3389/fpsyg.2021.64808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ndrews, V., & Borkovec, T. D. (1988). The differential effects of inductions of worry, somatic anxiety, and depression on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19*(1), 21 - 26.
- Ayduk, O., & Gyurak, A. (2008). Applying the Cognitive-Affective Processing Systems Approach to Conceptualizing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5), 2016-2033.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 - 877.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 - 792.
- Balazs, J., Miklosi, M., Keresztesy, A., Hoven, C. W., Carli, V., Wasserman, C., Apter, A., Bobes, J., Brunner, R., Cosman, D., Cotter, P., Haring, C., Iosue, M., Kaess, M., Kahn, J.-P., Keeley, H., Marusic, D., Postuvan, V., Resch, F., ... Wasserman, D. (2013). Adolescent Subthreshold-Depression and Anxiety: Psychopathology, Functional Impairment and Increased Suicide Risk.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6), 670 - 677.
- Beck, A. T. (1986). Cognitive approaches to anxiety disorders. In B. F. Shaw, Z. V. Segal, T. M. Vallis, & F. E. Cashman (Eds.), *Anxiety disorders: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perspectives* (pp. 115-136). New York: Plenum Press.
- Beck, A. T., & Bredemeier, K. (2016). A Unified Model of Depression: Integrating Clinical, Cognitive, Biological, and Evolutionary Perspectives.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4*(4), 596 - 619.
- Beck, A. T., & Clark, D. A. (1997).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anxiety: automatic and strategic process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1), 49 - 58.
- Berenson, K.R., Gyurak, A., Ayduk, O., Downey, G., Garner, M.J., Mogg, K., Bradley, B.P., & Pine, D.S. (2009). Rejection sensitivity and disruption of attention by social threat cu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1064-1072.
- Bowker, J.C., Thomas, K.K., Norman, K., & Spencer, S.V. (2011). Mutual Best Friendship Involvement, Best Friends' Rejection Sensitivity, and Psychological Maladapt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5), 545-555.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asey, S. M., Varela, A., Marriott, J. P., Coleman, C. M., & Harlow, B. L. (2022). The influence of diagnosed mental health condition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or anxiety on suicide ideation, plan, and attempt among college students: Findings from the Healthy Minds Study, 2018-2019.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8(Pt A), 464 - 471.
- Casini, E., Glemser, C., Premoli, M., Preti, E., & Richetin, J. (2021).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ggression, withdrawal, and prosociality. *Emotion (Washington, D.C.)*, 10.1037/emo0000908. Advance online publication.
- Chahar Mahali, S., Beshai, S., Feeney, J. R., & Mishra, S. (2020). Associations of negative cognitions, emotional regulation, and depression symptoms across four continents: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BMC Psychiatry*, 20(1), 1 - 12.
- Chango, J., McElhaney, K., Allen, J., Schad, M., & Marston, E. (2012). Relational Stresso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Rejection Sensitivity as a Vulnerabi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3), 369 - 379.
- Coyne, J. C. (1976). Toward an Interactional Description of Depression. *Psychiatry*, 39(1), 28.
- Croft, C.D., & Zimmer-Gembeck, M.J. (2014). Friendship Conflict, Conflict Responses, and Instabilit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4(8), 1094 - 1119.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43.
- Downey, G., Lebolt, A., Rincón, C., & Freitas, A.L. (1998a).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91.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b).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 - 560.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Duan, S., Lawrence, A., Valmaggia, L., Moll, J., & Zahn, R. (2021). Maladaptive blame-related action tendencies are associated with vulnerability to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45, 70 - 76.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org/10.1016/j.jpsychires.2021.11.043
- Ehrlich, K. B., Gerson, S. A., Vanderwert, R. E., Cannon, E. N., & Fox, N. A. (2015). Hypervigilance to Rejecting Stimuli in Rejection Sensitive Individuals: Behavioral and Neurocognitive Evid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5, 7 - 12.
- Ehring, T., Fischer, S., Schnülle, J., Bösterling, A., & Tuschen-Caffier, B. (2008). Characteristics of emotion regulation in recovered depressed versus never depressed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7), 1574 - 1584.
- Espelage, D. L., Holt, M. K., & Henkel, R. R. (2003). Examination of peer-group contextual effects on aggression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1), 205 - 220.
- Flink, I. L., Boersma, K., & Linton, S. J. (2013). Pain catastrophizing as repetitive negative thinking: a development of the conceptualization.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2(3), 215 - 223.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 - 1003.
- Galambos, N. L., Johnson, M. D., & Krahn, H. J. (2018). The anger-depression connection: Between-persons and within-person associations from late adolescence to mid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54*(10), 1940 - 1953.
- Gao, S., Assink, M., Cipriani, A., & Lin, K. (2017). Association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mental health outcome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57*, 59-74.
- Gardner, A. A., Zimmer-Gembeck, M. J., & Modecki, K. L. (2020). A longitudinal model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ing symptoms: Testing emotion regulation deficits as a mechanism and outcome of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88*(6), 1045 - 1057.
- Gamefski, N., & Kraaij, V. (2006).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A comparative study of five specific sam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8), 1659-1669.
- Gamefski, N., & Kraaij, V. (2018). Specificity of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Cognition and Emotion, 32*, 1401 - 1408.
- Gam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 - 1327.
- Gamefski, N., Kraaij, V., & van Eetten, M. (2005). Specificity of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Journal of Adolescence, 28*(5), 619 - 631.
- Gross, J. J. (2015). Emotion regulat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Psychological Inquiry, 26*(1), 1 - 26.
- Haefel, G., Voelz, Z., & Joiner, J. T. (2007). Vulnerability to depressive symptoms: Clarifying the role of 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an interpersonal model of depression. *Cognition & Emotion, 21*(3), 681 - 688.
- Hames, J.L., Hagan, C.R., & Joiner, T.E. (2013). Interpersonal processes in depression.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9*, 355-77.
- Harper, M.S., Dickson, J.W., & Welsh, D.P. (2006). Self-Silenc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435-443.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York: Guilford Publications.
- Hsieh, C. R., Liu, S., & Qin, X. (2019). The Hidden Costs of Mental Depression: Implications on Social Trust and Life Satisfaction. *Manchester School, 87*(2), 259 - 296.
- Hu, L.-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 - 55.
- Innamorati, M., Balsamo, M., Fairfield, B., Fabbriatore, M., Tamburello, A., & Saggino, A. (2014).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a comparison of three factor models.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2014*, 972424.
- Katz, S. J., Conway, C. C., Hammen, C. L., Brennan, P. A., & Najman, J. M. (2011). Childhood social withdrawal, interpersonal impairment, and young

- adult depression: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8), 1227 - 1238.
- Kim, B.-N., & Kang, H. S. (2022). Differential roles of reflection and broo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erial mediation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4, Article 111169.
- Klein, D. N., Shankman, S. A., Lewinsohn, P. M., & Seeley, J. R. (2009). Subthreshold depressive disorder in adolescents: predictors of escalation to full-syndrome depressive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8(7), 703 - 710.
- Kline, T.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New York: Sage.
- Kraines, M. A., & Wells, T. T. (2017).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Indirect Effects Through Problem Solving. *Psychiatry*, 80(1), 55 - 63.
- Kraines, M. A., Krug, C. P., & Wells, T. T. (2017). Decision Justification Theory in Depression: Regret and Self-Blam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1(4), 556-561 - 561.
- Lee, J. I., Parhar, I. S., & Soga, T. (2022). Hikikomori: Social withdrawal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6(7), 343 - 344.
- Lei, H., Zhang, X., Cai, L., Wang, Y., Bai, M., & Zhu, X. (2014).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out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218(1-2), 87 - 92.
- Lerner, J. S., & Keltner, D. (2000). Beyond valence: Toward a model of emotion-specific influences on judgement and choice. *Cognition & Emotion*, 14(4), 473 - 493.
- Lerner, J. S., & Tiedens, L. Z. (2006). Portrait of the angry decision maker: how appraisal tendencies shape anger's influence on cognition.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9(2), 115 - 137.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251 - 289). Oxford University Press.
- Liu, R. T., Kraines, M. A., Massing-Schaffer, M., & Alloy, L. B. (2014).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mediation by stress generation. *Psychiatry*, 77(1), 86 - 97.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Magee, K. E., & Connell, A. M. (2021). The role of substance use coping in linking depression and alcohol use from late adolescence through early adulthood.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29(6), 659 - 669.
- Maner, J. K., & Schmidt, N. B. (2006). The role of risk avoidance in anxiety. *Behavior Therapy*, 37(2), 181 - 189.
- Martin, R.C., & Dahlen, E.R. (2005).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7), 1249-1260.
- Mathews A. (1990). Why worry? The cognitive function of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6), 455 - 468.
- McDonald, K.L., Bowker, J.C., Rubin, K.H., Laursen, B., & Duchene, M. (2010). Interaction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s' Internalizing Difficul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5), 563-574.

- McRae, K., & Gross, J. J. (2020). Emotion regulation. *Emotion, 20*(1), 1 - 9.
- Melero, S., Orgilés, M., Espada, J. P., & Morales, A. (2021). How does depression facilitate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8*(2), 384 - 393.
- Nieto, I., Robles, E., & Vazquez, C. (2020). Self-reported cognitive biases in depression: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2*, 101934.
- Normansell, K.M., & Wisco, B.E. (2017).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s a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Cognition and Emotion, 31*(5), 950 - 962.
- Noyes, B. K., Munoz, D. P., Khalid-Khan, S., Brietzke, E., & Boonij, L. (2022). Is subthreshold depression in adolescence clinically releva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09*, 123 - 130.
- O'Mealey, M., & Mayeux, L. (2022).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opular Peers in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83*(2), 152 - 168.
- Omran, M.P. (2011).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Open Journal of Psychiatry, 1*(3), 106-109.
- Overall, N. C., & Sibley, C. G. (2009). When Rejection Sensitivity Matters: Regulating Dependence Within Daily Interactions With Family and Friend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8), 1057 - 1070.
- Preti, E., Casini, E., Richetin, J., De Panfilis, C., & Fontana, A. (2020).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Rejection Sensitivity: Independent Contributions to Adolescent Self-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Assessment, 27*(6), 1230 - 1241.
- Prince, M. A., Read, J. P., & Colder, C. R. (2019). Trajectories of College Alcohol Involvement and Their Associations with Later Alcohol Use Disorder Symptoms. *Prevention Science : The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for Prevention Research, 20*(5), 741 - 752.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ijntjes, A., Stegge, H., & Terwogt, M. M. (2006). Children's Coping with Peer Rejection: The Role of Depressive Symptoms, Social Competence, and Gender.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5*(1), 89 - 107.
- Rodkin, P. C., Farmer, T. W., Pearl, R., & Van Acker, R. (2006). They're Cool: Social Status and Peer Group Supports for Aggressive Boys and Girls. *Social Development, 15*(2), 175 - 204.
- Romero-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 - 148.
- Salvas, M. C., Vitaro, F., Brendgen, M., Lacourse, É., Boivin, M., & Tremblay, R. E. (2011). Interplay between friends' aggression and friendship quality in the development of child aggression during the early school years. *Social Development, 20*(4), 645 - 663.
- Schäfer, J. Ö., Naumann, E., Holmes, E. A., Tuschen-Caffier, B., & Samson, A. C. (2017).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in Youth: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6*(2), 261 - 276.

- Schanche, E., Vøllestad, J., Visted, E., Svendsen, J., Binder, P., Osnes, B., Franer, P., & Sørensen, L. (2021). Self criticism and self reassurance in individuals with recurrent depression: Effects of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and relationship to relapse. *Counselling & Psychotherapy Research, 21*(3), 621 - 632.
- Sfärlea, A., Takano, K., Buhl, C., Loechner, J., Greimel, E., Salemink, E., Schulte-Körne, G., & Platt, B. (2021).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Biases and Depressive Symptoms in Depressed, At-risk and Healthy Children and Adolescents. *Research on Child & Adolescent Psychopathology, 49*(10), 1345 - 1358.
- Shaver, P. R., Schachner, D. A., & Mikulincer, M. (2005). Attachment Style, 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Relationship Processes,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3), 343 - 359.
- Sheppes, G., Scheibe, S., Suri, G., Radu, P., Blechert, J., & Gross, J. J. (2014). Emotion regulation choice: a conceptual framework and supporting evid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3*(1), 163 - 181.
- Sibrava, N. J., & Borkovec, T. D. (2006). The Cognitive Avoidance Theory of Worry. In G. C. L. Davey & A. Wells (Eds.), *Worry and its psychological disorders: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 239 - 256). Wiley Publishing. doi.org/10.1002/9780470713143.ch14
- Sijtsema, J. J., Ojanen, T., Veenstra, R., Lindenberg, S., Hawley, P. H., & Little, T. D. (2010).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friendship selection and influence: A longitudinal social network analysis. *Social Development, 19*(3), 515 - 534.
- Simon, R. W., & Lively, K. (2010). Sex, Anger and Depression. *Social Forces, 88*(4), 1543 - 1568.
- Smith T. W. (1992). Hostility and health: current status of a psychosomatic hypothesis. *Health psychology : official journal of the Division of Health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1*(3), 139 - 150.
- Sowislo, J.F., & Orth, U.R. (2013).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9*(1), 213-240.
- Steger, M. F., & Kashdan, T. B. (2009). Depression and Everyday Social Activity, Belonging, and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289 - 300.
- Storch, E. A., Bagner, D. M., Geffken, G. R., & Baumeister, A. L. (2004). Association between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19*(6), 689 - 700.
- Straud, C. L., & McNaughton-Cassill, M. (2019). Self-Blame and Stress in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Proactive Coping.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7*(4), 367 - 373.
- Takano, K., & Tanno, Y. (2009). Self-rumination, self-reflection, and depression: Self-rumination counteracts the adaptive effect of self-reflec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3), 260 - 264.
- Takano, K., & Tanno, Y. (2010). Concreteness of thinking and self-focu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9*(1), 419 - 425.
- Takano, K., Sakamoto, S., & Tanno, Y. (2011). Ruminative and reflective forms of self-focus: Their relationships with interpersonal skills and emotional reactivity under interpersonal 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4), 515 - 520.

- Treynor, W., Gonzalez, R., & Nolen-Hoeksema, S. (2003). Rumination Reconsidered: A Psychometric Analy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3), 247 - 259.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Watkins, E., & Baracaia, S. (2001). Why do people ruminate in dysphoric moo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5), 723-734.
- Watkins, E., & Moulds, M. (2005). Distinct modes of ruminative self-focus: Impact of abstract versus concrete rumination on problem solving in depression. *Emotion, 5*(3), 319-328 - 328.
- Webb, T. L., Miles, E., & Sheeran, P. (2012). Dealing with feeling: a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strategies derived from the process model of emotion reg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8*(4), 775 - 808.
- Zhou, J., Li, X., Tian, L., & Huebner, E.S. (2018).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low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lonelines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93*(1), 54 - 71.
- Zimmer-Gembeck, M.J. (2015). Emotional sensitivity before and after coping with rejectio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41*, 28-37.
- Zimmer-Gembeck, M.J., & Nesdale, D. (2013). Anxious and angry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withdrawal, and retribution in high and low ambiguous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81*(1), 29-38.
- Zimmer-Gembeck, M.J., Nesdale, D., Webb, H.J., Khatibi, M., & Downey, G. (2016). A Longitudinal Rejection Sensitivity Model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Unique Roles of Anxiety, Anger, Blame, Withdrawal and Retribu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7), 1291-1307.

원고접수일: 2022년 11월 19일
 논문심사일: 2023년 1월 30일
 게재결정일: 2023년 4월 3일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Yerin Lee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whether the path of rejection sensitivity to depression may differ depending on sub-factor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300 college students (98 Males, 202 females) completed online self-report questionnaires to measure rejection sensitivity,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on.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AMOS 26.0. Results showed that all sub-factors of rejection sensitivity uniquely predicted depression. Furthermore, there wer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f catastrophizing and self-blame on anxiety about rejection and depression, and the direct effect of anxiety about rejection was also significant. There was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catastrophizing on anger about rejection and depression, but the direct effect of anger about rejection was no longer significant. In the case of rejection expectation, only the direct effect leading to depression was significant without going through each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This study provides clinical implications that will be useful in providing tailored interventions based on the types of negative emotions expected in rejection situations and subsequently lower the level of depression in rejection-sensitive individuals.

Keywords: Dep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부 록

거부민감성 질문지(RSQ)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상황을 주의 깊게 읽은 후, A, B, C 문항 ‘모두’에 대해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적당한 숫자에 O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만일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런 상황에 처할 경우를 상상해서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상황1.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강의노트를 빌려 달라고 한다.							
A	강의노트를 빌려주지 않을지에 대해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강의노트를 빌려주지 않을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강의노트를 빌려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2. 친구에게 이사 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 부탁한다.							
A	이사 오기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이사 오기를 거절할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이사 오라는 부탁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3. 부모님에게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A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지 않을까 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지 않을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실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4.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A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5. 당신의 남자(여자)친구는 오늘 밤에 다른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남자(여자)친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남자(여자)친구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요구한다.							
A	남자(여자)친구가 당신과 함께 있어줄지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남자(여자)친구가 당신과 함께 있어주지 않을까 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남자(여자)친구가 당신과 함께 있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6. 부모님께 용돈을 더 달라고 부탁한다.							
A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지 않을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7.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수업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좀 더 설명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A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주실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주시지 않을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8.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에,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다.							
A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 주저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아무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9.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한다.							
A	그 사람이 그러자고 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그 사람이 그러자고 하지 않을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그 사람이 같이 커피를 마실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0. 졸업하고 난 다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 부모님께 당분간 생활비를 보조해달라고 요구한다.							
A	생활비 보조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생활비 보조를 거절할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생활비를 보조해 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1. 방학 기간 동안, 친구에게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							
A	친구가 여행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친구가 여행 제안을 거절할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친구가 여행 제안을 받아들여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2. 남자(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먼저 전화해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A	남자(여자)친구가 만남을 거절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남자(여자)친구가 만남을 거절할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남자(여자)친구가 만나자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3. 친구에게 어떤 물건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다.							
A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친구가 물건을 빌려주지 않을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4. 부모님께 내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다.							
A	부모님이 참석 요청을 거절할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부모님이 참석 요청을 거절할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부모님이 참석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5. 친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							
A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6. 남자(여자) 친구에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본다.							
A	남자(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남자(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남자(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7. 클럽에서 눈에 띄는 여성(남성)에게 다가가서 춤을 추자고 청한다.							
A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내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8. 남자(여자)친구에게 부모님을 만나러 와 달라고 요청한다.							
A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B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짜증이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C	내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